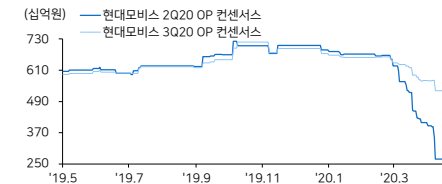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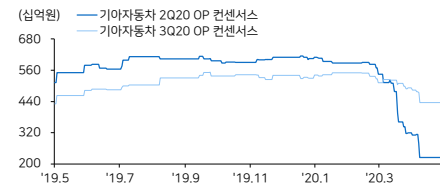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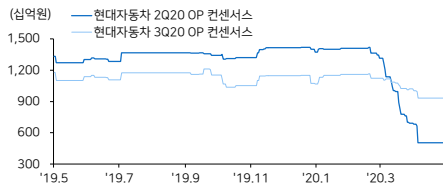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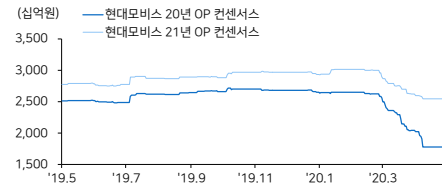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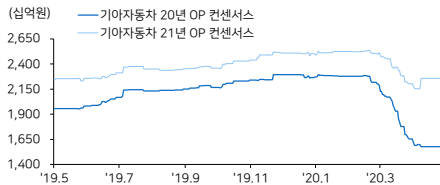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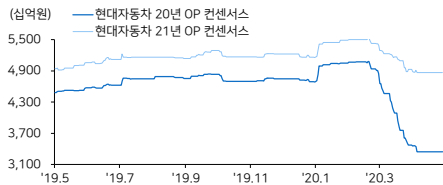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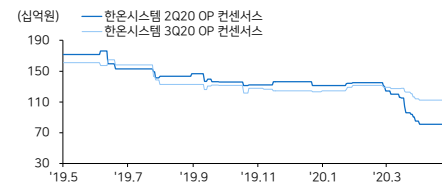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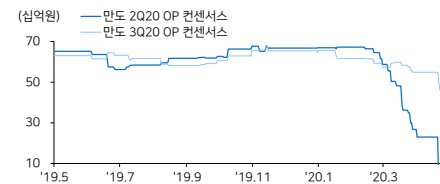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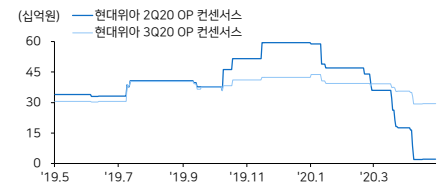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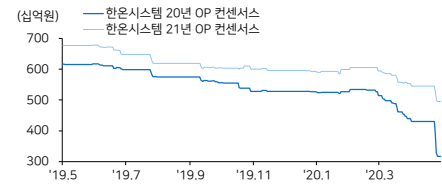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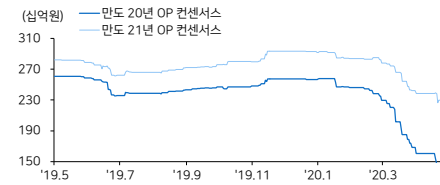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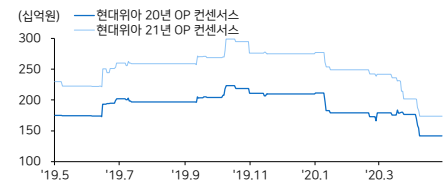


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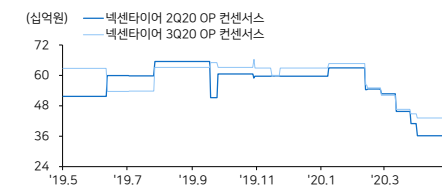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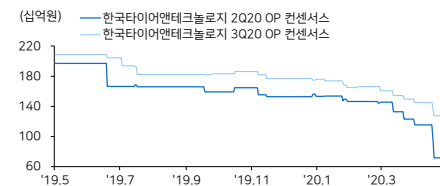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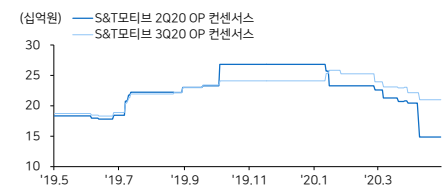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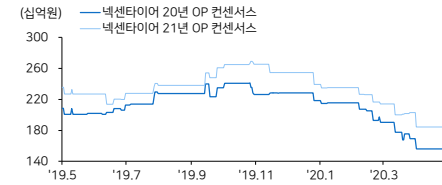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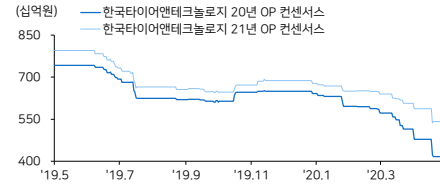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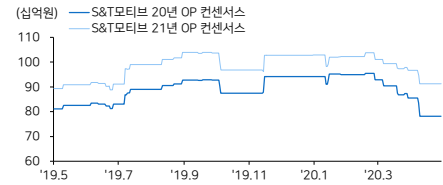
현대차 / 기아차 / 현대모비스



현대위아 / 만도 / 한온시스템



S&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

제네시스 GV80, 유럽 첫 데뷔 무대 '러시아'...판매고 2배 확대 목표 (더그루)

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첫 번째 SUV인 'GV80'가 유럽시장 진출에 앞서 러시아에 전격 출격. 현대차는 러시아를 제네시스 테스트베드로 삼고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한 뒤 이를 토대로 유럽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전략. <https://bit.ly/2LDxwdH>

스타트업 '냥'은 현대차, 이번에 독립한 4곳은 어떤 기업? (머니투데이)

현대자동차그룹이 사내에서 키운 유망한 스타트업을 독립할 수 있도록 분사했다고 18일 밝혔다. 현대차그룹이 이달에 분사한 기업은 스마이셀(MYCEL) △PM SQL(피엠솔) △원더무브(WONDERMOVE) △엘엠캐드(ELMCAD) 등 4곳. <https://bit.ly/3fVHVzr>

미 자동차 '빅3', 두달만에 미국내 공장 부분 재가동 (연합뉴스)

코로나19 사태로 3월 중순부터 가동 중단에 들어갔던 GM, 포드, FCA 등 미국 주요 자동차업체와 부품 공급 업체들이 18일(현지시간) 약 2달 만에 미국 내 공장에 대한 부분적인 재가동에 들어감. <https://bit.ly/2AHntH4>

폴스바켄·볼보도 전기차 전용 전시장...'힐'이 중요한 전기차 시대 (조선비즈)

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완성차들이 전기차 전용 브랜드를 만들고, 전시장을 따로 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. 전기차 구매자들이 브랜드 이미지에 더 민감하고, 기존 브랜드 이미지로는 구매자를 끌어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임. <https://bit.ly/3g47caq>

현대·기아차, 2Q 수익 부진... "신차볼로로 돌파한다" (데일리안)

현대·기아차가 2분기 '신차볼'을 이어가기 위해 권역별 맞춤형 마케팅에 나선.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고 있지만 온라인 판매 등 비대면(언택트) 방안을 적극 활용해 점유율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. <https://bit.ly/2WtH6h>

후 부품사 94% 투기 등급...100대업체 중 46곳 '빛'에 허덕 (헤럴드경제)

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완성차 수요 위축으로 국내 부품업체 10곳 중 9곳의 신용등급이 투기등급 수준으로 떨어짐. 또 올해 최대 60%까지 급감한 매출로 부품업체의 절반은 유입 중이거나 섣달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남. <https://bit.ly/3bHrYJJ>

"코로나로 자동차 산업 전면개편 불가피" (한국일보)

코로나19 팬데믹이 자동차 산업을 영구적으로 개편시킬 수 있다는 전망. 판매량이 급감하는 추세가 지속되면 공장이 문을 닫거나 타 공장과 M&A에 나서기도 하며 추력 판매를 전기차로 바꿔야 하는 압력이 더욱 강해질 수 있음. <https://bit.ly/2Thig5w>

Detroit itches to restart, but suppliers struggle with liquidity issues (AN)

Ramp-up challenges in Mexico and liquidity issues among lower-tier parts makers are making Detroit's planned restart a nail-biter. <https://bit.ly/2TepTYy>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